

2011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항공우주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세계 주요 투자기업

- 아틀란티스 에어로스페이스 (Atlantis Aerospace)
- 벨헬리콥터(Bell Helicopter) 텍스트론 캐나다(Textron Canada)
- 보잉캐나다 테크놀로지 (Boeing Canada Technology)
- 도니에르 씨플레인 컴퍼니 (Dornier Seaplane Company)
- 이스터라인/CMC(Esterline/CMC Ltd.)
- 유로콥터 캐나다 (Eurocopter Canada Ltd.)
- GE 에비에이션(GE Aviation)
- 굿리치(Goodrich)
- 하니웰(Honeywell)
- L-3 커뮤니케이션스 (L-3 Communications)
- 리베르 에어로스페이스 (Liebherr Aerospace)
- 록헤드마틴 캐나다 (Lockhead Martin Canada)
- 메시에르다우티(Messier-Dowty)
- 피아지오에어로 (Piaggio Aero Industries)
- 프랫앤드윙트니 캐나다 (Pratt&Whitney Canada)
- 롤스로이스 (Rolls-Royce Canada Ltd.)
- 스탠다드 에어로(Standard Aero)
- 탈레스(Thales)

캐나다 선도기업

- 애브콥 인더스트리즈 (Avcorp Industries)
- 봄바디어(Bombardier)
- CAE
- 센트라 인더스트리즈 (Centra Industries)
- COM DEV 인터내셔널 (COM DEV International)
- 가디언 헬리콥터 (Guardian Helicopters)
- 헤록스데브텍(Héux-Devtek)
- 인텔칸 테크노시스템즈 (Intelcan Technosystems)
-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Magellan Aerospace Corporation)
- 벡터 에어로스페이스 (Vector Aerospace)
- 바이킹에어(Viking Air)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GE 에비에이션(GE Aviation)

2011년 GE 에비에이션은 스탠다드 에어로와 합작으로 위니펙에 소재한 센터의 연구·개발·실험에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GE 캐나다(GE Canada)

2010년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자회사 GE 캐나다는 퀘벡주 브로몽에서의 제조 프로젝트에 6,3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이를 통해 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니에르 씨플레인 컴퍼니(Dornier Seaplane Company)

2010년 도니에르 씨플레인 컴퍼니는 퀘벡주 생장쉬르 리솔리에에서 진행된 제조 프로젝트에 7,1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여 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리베르 에어로스페이스(Liebherr Aerospace)

2010년 스위스 회사인 리베르의 자회사 리베르 에어로스페이스는 퀘벡주 라발에 위치한 착륙장치 조립 공장 설비 확장에 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3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터라인 CMC 일렉트로닉스 (Esterline/CMC Electronics)

2009년 이스터라인 CMC 일렉트로닉스는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향후 5년간 퀘벡주의 R&D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보잉캐나다 테크놀로지(Boeing Canada Technology)

2008년 보잉캐나다 테크놀로지는 마니토바주에서의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약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했다.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사진 출처: CAE 훈련 센터, CAE가 제작한 비행 시뮬레이터.

항공우주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에 따르면, 세계 항공우주산업은 2009년 기준 3,820억 달러(미화) 규모에서 2020년 5,150억 달러(미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¹ 민간군사용 항공우주 양 영역에서 이러한 성장이 예상된다.

캐나다 항공우주산업²은 이러한 세계적 성장세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400여 개의 항공우주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캐나다는 2009년 222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83,000여 명의 고속련 노동자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총 46 억 달러이다.

캐나다는 항공우주산업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다. 주요 분야로는 중소형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 소형 가스엔진, 로봇공학, 위성기술, 통신기술, 항공기 유지·보수·점검(MRO), 복합재료, 착륙장치 시스템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항공우주 관련 제품의 약 80%는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2009년 캐나다의 항공우주산업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항공우주 및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3 억 달러에 달한다.³

2011년 3월에 발간된 RNCOS의 시장조사에 따르면,⁴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항공우주시장은 세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여객수송의 감소 및 수출시장의 성과 부진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2010년 말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2년경에는 세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제작에 대한 캐나다의 전문지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응용 부문은 전 세계 주요 항공우주 기업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더욱이, MRO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부상했다. 마니토바주와 퀘벡주처럼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구축된 지역은 세계적인 MRO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 텔그룹 코퍼레이션(Teal Group Corporation).
 2.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기재된 정보는 민간 항공우주산업에 한하여 그 타당성을 지닌다.
 3.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AIACCA): 2008년 항공우주산업 실적.
 4.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미래 전망, RNCOS, 2011년 3월.

MRO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대학들과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과학기술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고 비용 효율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공급해 왔다. MRO 부문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캐나다는 관련 기업들에게 잠재성 높은 투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G20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조 투입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러한 감면은 2010년에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2015년까지 화학, 섬유, 석조, 유리, 금속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하여 캐나다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모든 투입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핵심역량

세계 가치사슬에 속하는 캐나다 항공우주업체들은 수많은 제품 및 제조공정 관련 전문기술을 개발했다.

중소형 항공기 및 회사 전용기: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봄바디어(Bombardier)는 중소형 항공기 및 회사 전용기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봄바디어의 CRJ 제트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항공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1,500대 이상 운항되고 있다.

가스터빈 엔진: 프랫 앤드 휘트니 캐나다(Pratt & Whitney Canada)와 롤스로이스(Rolls-Royce Canada Ltd) 등 세계 주요 투자기업들의 캐나다 지사는 소형 가스터빈 엔진 부문에서 전 세계 수요의 1/3을 공급한다.

민간 항공기 시뮬레이터 및 비주얼 시뮬레이터: CAE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캐나다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민간헬기: 캐나다는 벨헬리콥터 텍스트론 캐나다(Bell Helicopter Textron Canada) 등 자국 기업을 통해 전 세계 민간용 터빈 헬기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한다.

착륙장치: 헤록스데브텍(Heroux-Devtek) 등 캐나다 기업이 전 세계 착륙장치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 항공기에 사용되는 착륙장치의 60%를 제조한다.

구조 조립품: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Magellan Aerospace) 등 항공업계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다.

항공전자장치: 캐나다 항공전자산업은 맥스크래프트 애비오닉스(Maxcraft Avionics), 애비오닉스앤드 인스트루먼트(Canadian Avionics and Instruments), 퍼시픽 애비오닉스앤드 인스트루먼트(Pacific Avionics and Instruments) 등 다수의 중·소형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 통신기술, 네비게이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전용 시스템을 생산한다.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유지·보수·점검(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캐나다에는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Magellan Aerospace), 스탠다드 에어로(StandardAero)를 비롯한 주요 항공기 엔진 및 MRO 업체가 있다.

재능 개발 및 배치

토론토의 라이어슨대학(Ryerson University),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오타와의 칼튼대학(Carleton University), 몬트리올 맥길대학(McGill University) 등 캐나다 주요 대학들은 학부생과 졸업생, 박사들을 대상으로 항공우주공학과 관련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화된 분야로는 항공공학, 추진기술, 항공기 구조 및 비행 조정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의 상황에 긴밀하게 부합하는 분야들이다.

캐나다의 경쟁력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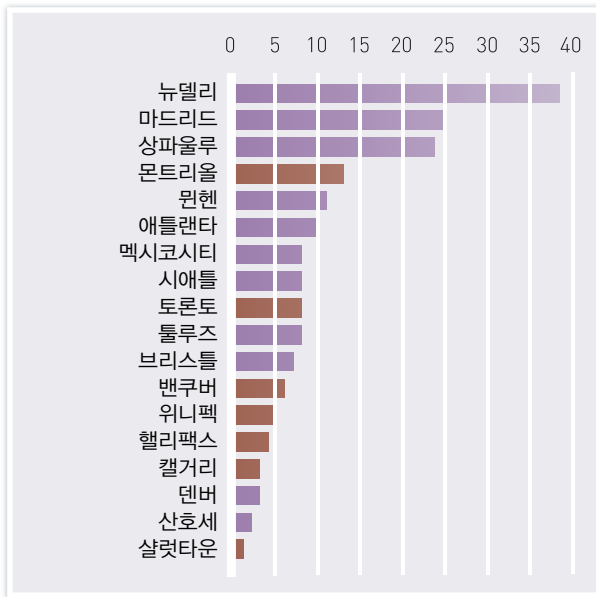
그린필드식 운송-장비 프로젝트

(외국인 직접투자 IFDI)

최근 몇 년간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는 운송-장비 부문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인 그린필드 투자의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그린필드 투자에는 최신 시설 구축 및 영구·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다.

- ▶ 이 도표는 2003년 이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그린필드 외국인 직접투자 횟수를 집계한 것이다.

운송-장비(외국인 직접투자)



출처: fDi 벤치마크, fDi 마켓(2010년 3분기).

장점:

항공우주 관련 상당한 수익

캐나다는 2008~2009년 항공우주산업 활동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뒤를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항공우주분야에서 캐나다는 22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83,000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생산된 항공우주관련 제품의 78%가 수출되었다.

전 세계 항공산업 수익규모(2008)

순위	국가명	수익 (미달러, 10억 기준)
1.	미국	204.0
2.	프랑스	50.4
3.	영국	32.7
4.	독일	32.1
5.	캐나다	22.3
6.	일본	14.1
7.	중국	12.0
8.	러시아	10.0
9.	이탈리아	9.9
10.	브라질	7.6
11.	스페인	6.1
12.	싱가포르	4.3
13.	인도	4.0
14.	네덜란드	3.4
15.	멕시코	3.0
	기타	34.2
	총계	450.0

출처: 에어로 스페이스 글로벌라이제이션 2.0: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의 영향, 2009년 11월, 캐나다 항공우주산업협회(AIAC)에 제공하기 위해 항공 전략 운영 컨설팅(AeroStrategy Management Consulting)이 작성함.

캐나다의 항공우주산업: 개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아브콥 인더스트리즈(Avcorp Industries)를 비롯해 **밴쿠버** 광역권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업 기업들은 보잉사의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와 인접해 있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헬기 서비스, 항공 엔진 점검, 다목적 항공기 MRO, 우주 시스템, 첨단 복합소재 항공기 구조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대(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내의 캐나다 최대 항공우주 훈련센터가 이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SCO 에어로스페이스(ASCO Aerospace), 아브콥 인더스트리즈(Avcorp Industries), 캐스캐이드 에어로스페이스(Cascade Aerospace), CHC 헬리콥터(CHC Helicopter), 켈로나 플라이트크라프트(Kelowna Flightcraft), 맥도날드 디트윌러조합원(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MTU 메인テナンス(MTU Maintenance), 벡터 에어로스페이스(Vector Aerospace), 바이킹에어(Viking Air) 등이 있다.

앨버타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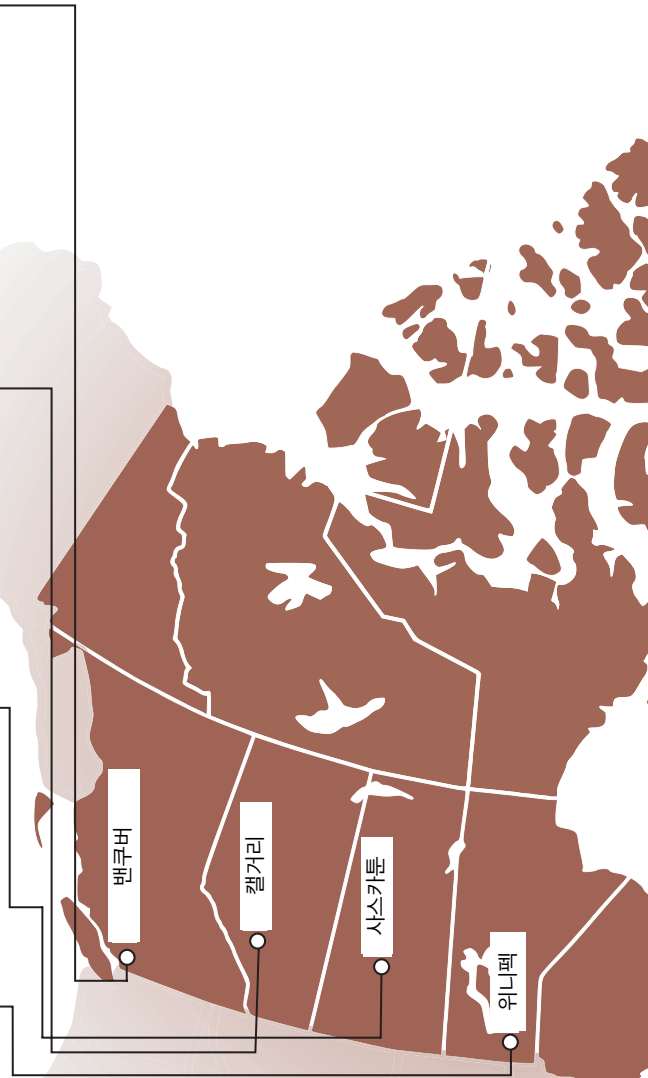
매년 1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앨버타주의 항공우주산업은 항공사 및 공항시설 이외의 분야에서 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40%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캐나다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앨버타주는 로봇공학, 무인차량시스템(UVS), 우주과학, 지형측정학, 네비게이션 시스템, MRO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캘거리** 지역만 50개 이상의 항공우주업체가 성업 중이며, MRO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탄탄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다. 앨버타주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업체로는 ATCO 프론텍(ATCO Frontec), 필드 에비에이션(Field Aviation), ITRES, 이웅터스 지오매틱스(lunctus Geomatics), 프랫앤드휘트니(Pratt & Whitney), 노바텔(NovAtel), 레이시온(Raytheon) 등이 있다.

사스캐추완주 ○

사스캐추완주의 항공우주산업체들은 인공위성 기술, 무선통신 시스템, 대기 연구 및 실험, 싱크로트론 연구 개발, 초미세 전기기계장치, 건물구조, 케이스, 하네스, 미니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여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는 약 2,5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사스카툰** 지역 주변에 기업들이 모여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ED 시스템즈(SED Systems), 베시마 네트워크스(Vecima Networks),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테이션(Scientific Instrumentation), 서밋 스트럭처스(Summit Structures), SBC 케이스(SBC Case), 드래간플라이 이노베이션즈(Draganfly Innovations) 등이 있다.

마니토바주 ○

마니토바주의 주도인 **위니펙**은 캐나다 서부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북미 항공기용 복합재 부품 제조 및 MRO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잉사는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재 제조 공장과 10개 주요 민간 항공기 제조 공장 중 한 곳을 위니펙에 두고 있다. 위니펙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직접고용인구는 약 5,300 명으로 이러한 고용창출에는 보잉캐나다 테크놀로지(Boeing Canada Technology),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Magellan Aerospace), 아베이오스(Aveos), 스탠다드에어로(StandardAero)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하여 23개의 지방기업 및 국영기업,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이 기여했다. 특히 위니펙 소재 스탠다드 에어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독립적인 항공기 유지·보수·점검업체(MRO)이다.





○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 남서부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곳으로, 2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및 20,000명이 넘는 숙련 노동 인구를 자랑한다. 대표적인 도시 **토론토**는 항공기 부품 제조, 항공기 시스템 개발, MRO 등으로 유명하며 볼바디어 (Bombardier), 프랫앤드휘트니 캐나다(Pratt & Whitney Canada), 하니웰 캐나다 (Honeywell Canada),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Magellan Aerospace), 노스타 에어로스페이스(Northstar Aerospace) 등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기업체들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토론토 항공우주대학(University of Toronto Institute for Aerospace Studies)과 라이어슨대학 항공우주 디자인 혁신 연구소(Ryerson Institute for Aerospace Design and Innovation)가 다양한 산학협력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퀘벡주

퀘벡주의 **몬트리올**은 캐나다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항공기 조립, 엔진 제조, MRO, 항공전자 장치, 착륙장치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캐나다 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 항공우주제조기술센터(Aerospace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re), 항공우주연구혁신컨소시엄(the Consortium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Aerospace)을 비롯한 항공우주연구센터가 10개 이상 모여있다.

퀘벡항공우주협회(Québec Aerospace Association)와 에어로 몬트리올(Aéro Montréal) 등 지원기관들이 효율적인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몬트리올에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비즈니스 항공위원회(IBAC),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볼바디어(Bombardier), 벨헬리콥터 텍스트론 캐나다(Bell Helicopter Textron Canada), 프랫앤드휘트니 캐나다(Pratt & Whitney Canada), 롤스로이스 캐나다(Rolls-Royce Canada), CAE 등 항공우주업계 종사자는 42,400명 이상이다. 2009년에만 퀘벡주의 항공우주산업 수출규모는 115억 달러를 넘는다.

○ 뉴브런즈윅주

뉴브런즈윅주의 **프레더릭턴**과 **몽크턴**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우주디자인, 첨단복합재 및 보안 통신연구, 전자/항공전자 장치 조립, 선진 학습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금속가공, 정밀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항공우주기술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노바스코샤주

노바스코샤주의 주도인 **할리팩스**에는 복합재 제조, 전자 조립, 시뮬레이션 몰딩 기술, 엔진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 우주업체들의 본사가 모여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프랫앤드휘트니(Pratt & Whitney Canada), IMP 그룹(IMP Group), EADS 컴퍼짓 애틀랜틱(EADS Composites Atlantic), 씨비전(C-Vision), CAE 등이 있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주도인 **살렛타운**은 엔진 MRO, 엔진 코팅제, 항공기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하니웰 캐나다(Honeywell Canada)와 벡터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서비스 애틀랜틱(Vector Aerospace Engine Services-Atlantic)을 비롯한 9개 기업이 서머사이드 근처 슬레먼 파크에 자리잡고 활동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급성장에 발맞춰 홀랜드 칼리지 항공우주센터(Holland College's Aerospace Centre)는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항공기 개조, 해양감시장비, 항공부품 제조 및 조립, 항공 MRO, 네비게이션 및 통신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해양/항공 훈련 프로그램 및 무인차량 시스템과 해양음향 응용장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샌더** 공항과 북대서양 항공 관제능력을 통해 민간항공의 핵심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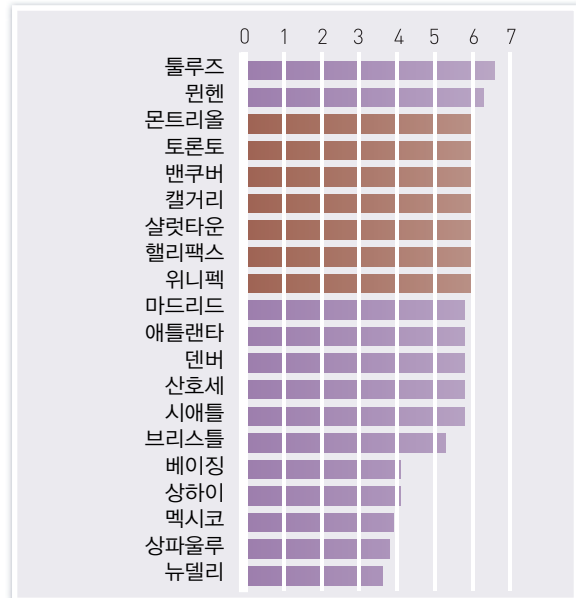
장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캐나다의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 공공 인프라는 도시와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캐나다의 도로와 교량, 철도, 항구, 공항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축과 관리 수준이 높고 안전하다.

- ▶ 이 도표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의 전반적 질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인프라의 개발수준이 '매우 낮음'을 뜻하고 7점은 '매우 높음'을 뜻한다.

인프라 전반의 질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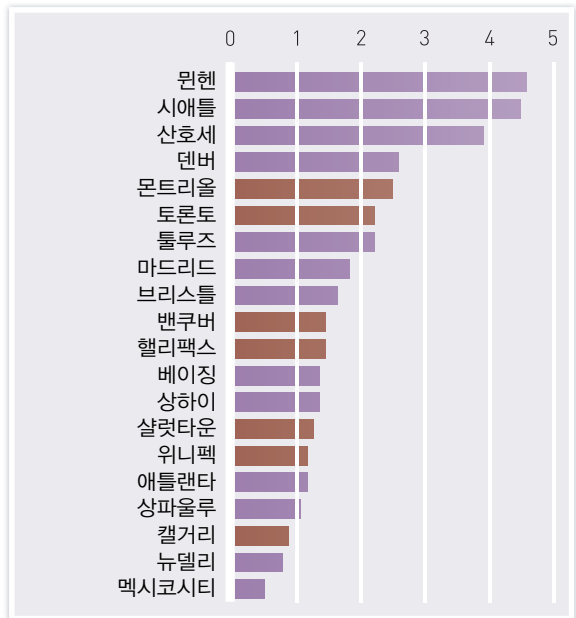
장점:

R&D 투자

세계 주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와 비교해 캐나다는 GDP 대비 항공우주 부문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비교적 높다.

- ▶ 이 도표는 GDP 대비 세계 각국의 R&D 투자 규모를 나타낸다.

R&D 투자



출처: fDi 벤치마크, 미국국립과학재단, 영국국립통계국, 유럽통계국, 국제통화기금(IMF), 캐나다 통계청, 브라질 과학기술부, UNESCO.org.uk, 2009년 OECD 통계연감 등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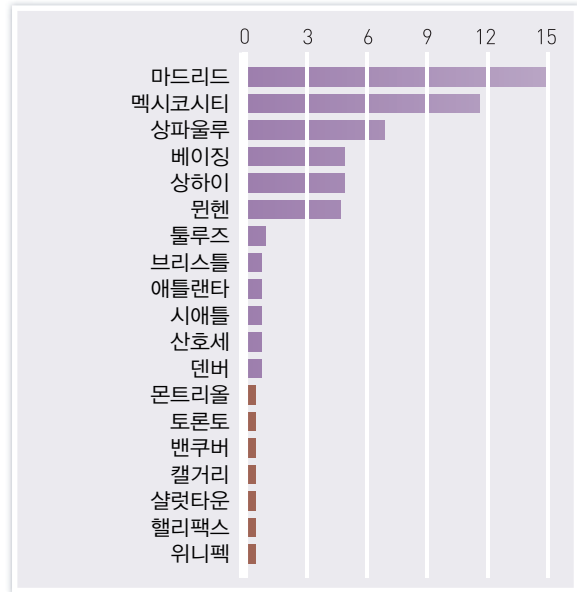
장점:

낮은 창업 비용

캐나다 내 창업비용은 상당히 낮아 유럽과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매우 높다. 캐나다는 기업세율이 낮은 동시에 G7 국가 중 지불급여세가 가장 낮다.

- ▶ 이 도표는 창업 절차에 정식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을 0~15의 점수로 표시한다.

창업비용



출처: fDi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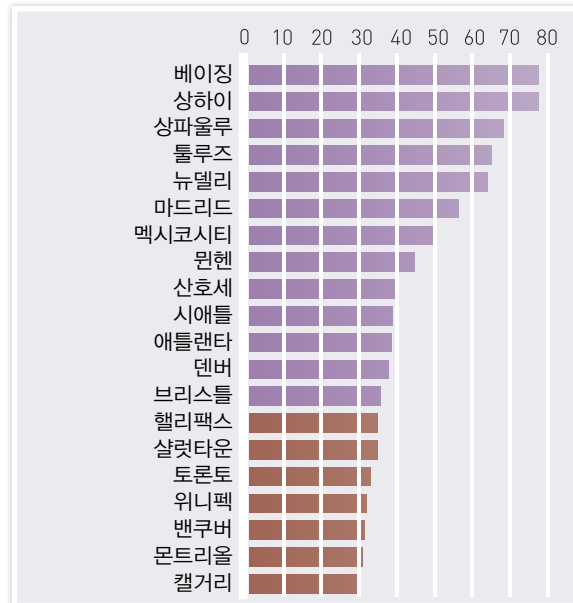
장점:

유리한 법인세율

다른 국가들에 비해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기업친화적이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에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는 2009~2010년 사이에 기업의 총 이익 대비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총세액



출처: fDi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세금재단, 미국 주와 OECD 국가의 국가·주별 법인세율, 2009년. KPMG: 일반 기업의 소득세율(2008/2009).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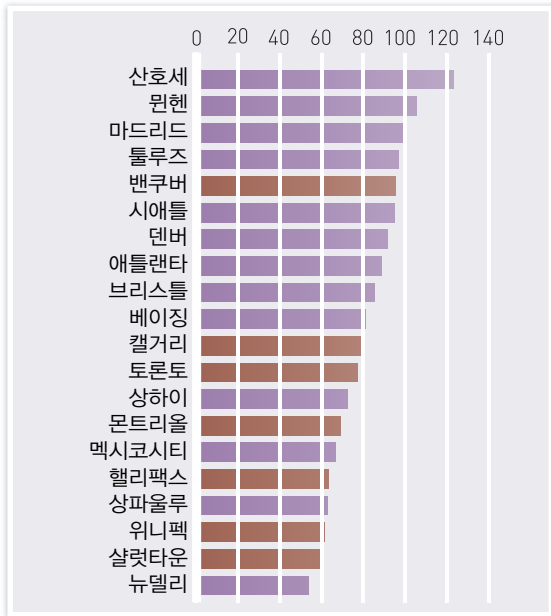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핼리팩스, 위닉펙은 더 낮은 생활비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고,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이 도표는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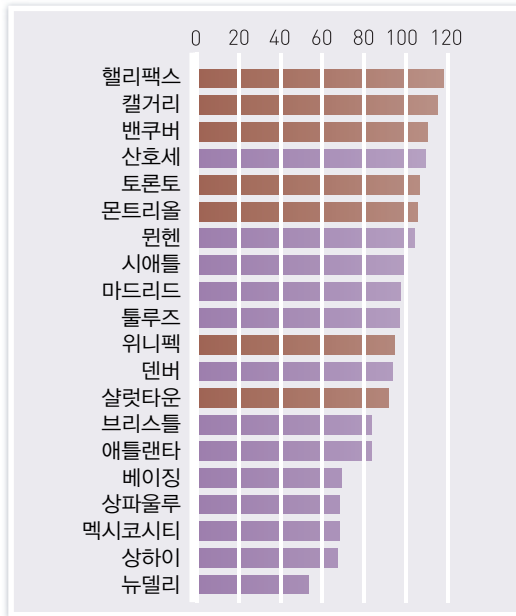
▶ 이 도표는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생활비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삶의 질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사진 출처: CRJ900, 봄바디어 에어로노틱스(Bombardier Aeronautics).

투자지역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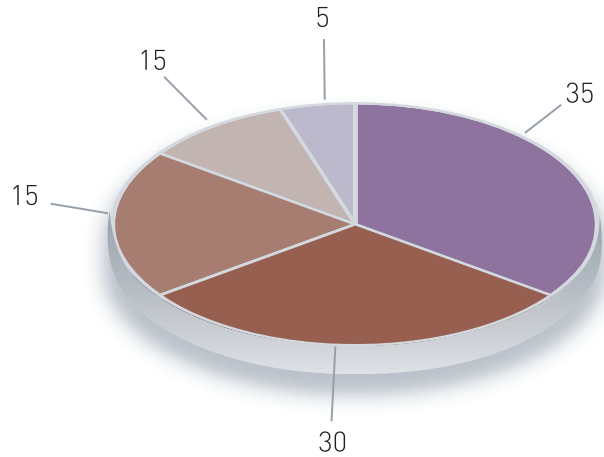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 ▶ 이 문서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캐나다 및 외국 도시들은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다.
 선정도시: 애틀란타, 베이징, 브리스틀, 캘거리, 샬럿타운, 덴버, 핼리팩스, 마드리드, 멕시코시티, 몬트리올, 뮌헨, 뉴델리, 산호세, 상파울루, 시애틀, 상하이, 토론토, 툴루즈, 밴쿠버, 워니펙
- ▶ 다음 기업 프로파일은 직원 250명인 항공우주 산업 제조공장의 세부 사항이다. 대부분의 직원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며 일부가 시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주항공제조업체

비용 요소	건물
사용량	평방미터
총 사용면적 (시내 사무실 임대)	1,200 m ²
총 사용면적 (산업용지 임대)	50,000 m ²
공공서비스	
전기	42,000 100 kWh
산업용 가스	220,000 m ³
직원 유형	재무
인원	
회계사	2
제조	
제조 책임자	1
생산 관리자	1
생산 담당자 (고숙련)	50
생산 담당자(숙련)	130
생산 담당자 (미숙련)	20
품질 관리자	1
품질관리 전문가	10
R&D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27
행정	
시설/사무실 서비스 전문가	2
비서	6
총인원	250

질적모형 / 가중치 적용



가중모형 개요	가중치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35%	
노동가용성과 질	30%	
일반 사업환경	15%	
인프라 및 접근성	15%	
주거환경	5%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 의료 체계,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1-2011E

ISBN 978-1-100-18407-4